

서울의 고주택(古住宅)

梨大美術大 助教授 朱 南 哲

- | | |
|--------------------|--------------|
| 1. 서울의 역사적 배경과 古住宅 | 3. 서울의 古住宅特色 |
| 2. 서울의 古住宅 實例 | 1) 平面的 特色 |
| 1) 서민계급의 古住宅 | 2) 構造的 特色 |
| 2) 중류계급의 古住宅 | 참고문헌 |
| 3) 상류계급의 古住宅 | |

1. 서울의 역사적(歷史的) 배경과 고주택(古住宅)

서울의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즉위한 후 일개월(一個月)이 채 못되어 개성(開城)으로부터의 전도문제(奠都問題)가 논의되면서 이씨조선(李氏朝鮮)의 수도로서 그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서울은 본래 고려(高麗) 문종(文宗) 숙종(肅宗)이래 남경(南京)의 지(地)로서 중요(重要)한 위치(位置)를 차지하여 왔고 풍수지리상(風水地理上) 선택된 곳이었었다.

태조(太祖)는 모악천도론(母岳遷都論)까지 있었으나 태조(太祖) 3年 9月1일에 『신도(新都) 궁궐조성도감(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하고 태조(太祖) 3年 10月 28일에 전도(奠都)하였다.

그후 第1次 왕자란후(王子亂後) 정종원년(定宗元年) 3月 7일에 한양(漢陽)이 부적하다 하여 다시 개경(開京)으로 수도를 옮겼다가 제2왕자난(第二王子亂)이 나고 방원(芳遠)이 그 위(位)를 물려받게 되자 한양재전도(漢陽再奠都)에 뜻을 두던 중 태종(太宗) 5年 10月 8일에 비로소 개경(開京)을 출발하여 11일에 한성(漢城)에 도착함으로써 서울은 이조오백년간(李朝五百年間)은 물론 현재(現在)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수도로서 정치(政治), 경제(經濟) 문화(文化) 모든 분야(分野)의 중심지(中心地)가 되었다.

태종5년(太宗五年)부터 수도건설사업(首都建設事業)은 『좌묘우사(左廟右社) 전조후시(前朝後市)』라는 동양고래(東洋古來)의 수도배치에 따라 왕실(王室)과 국가(國家)상징인 종묘(宗廟)와 사직(社稷)과 궁궐(宮闕)을 건설(建設)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시가지(市街地)가 자리 잡히고 주택(住宅)들이 제자리를 잡은 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태종(太宗) 11年 윤(閏)12월에 지금의 청계천의 개거(開渠)의 대공사(大工事)를 계획하여 『개거도감(開渠都監)』을 두고 다음해 정월(正月)부터 각도민정(各道民丁) 5만(萬)2천(千)여명을 동원하여 이 공사를 완성하였고 정종(定宗) 원년(元年)에 혜정교(惠政橋)에서 창덕궁동구(昌德宮洞口)(종로 3가(街))까지 좌우행곽팔백여간(左右行廓八百餘間)을 지었다는 기록과 태종(太宗) 10年 정월(正月) 운종가(雲從街)정비, 12년부터 대규모의 행곽조성공

사(行廊造成工事)가 시작되었다 하니 이때를 전후(前後)로 하여 주택(住宅)들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고려말(高麗末), 남경이궁(南京離宮)이 현(現) 청와대부근에 있었다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근에 공아(公衙)등이 건설되고 민가(民家) 역시 자리 잡고 있었음이 추측된다. 또 『지봉유설(芝峯類說)』에 의하면 동촌(東村) 또는 양류촌(楊柳村)이라 불리우던 현재의 효제동 부근에 민가(民家)가 가장 많이 집중(集中)되었다 하며 태조초(太祖初)에 5부(五部) 각방(各坊)을 구획할 때 동대문(東大門) 밖에 승신방(崇信坊), 인창방(仁昌坊), 서대문(西大門) 밖에 반송방(盤松坊)등을 두었던 것을 미루어 보아서 이곳에도 한양(漢陽)의 원주민(原住民)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註 1)

주택(住宅)에 대(對)한 직접적인 논의로 대두된 최초의 문제는 태조(太祖) 4年 정월(正月) 가대(家垵)를 품계(品係)에 따라 양급(量給)하였으니 그 내용(內容)은 다음 표(表)와 같다.

품계(品係)	혈수(頁數)	現行坪數	品係	頁數	現行坪數
1品	35	1,365	6品	10	390
2品	30	1,170	7品	8	312
3品	25	985	8品	6	234
4品	20	780	9品	4	156
5品	15	585	서인(庶人)	2	78

다음 두번째의 문제는 주택규모(住宅規模)의 제한으로 세종(世宗)12年(AD 1430)에 최초로 논의되어 세종(世宗) 13年 정월(正月)에 제정된 간각지수(間閣之數)와 간각척수(間閣尺數)의 제한(制限)이었다. 여기에 아울러 장식적(裝飾的)인 제한(制限)으로 숙석(熟石), 화공(花栱), 초공(草栱), 진채(眞彩), 단청(丹青)을 일반주택(一般住宅)에서는 금지시킨 것이다.

이상의 논의가 정식(正式)으로 법전(法典)에 오르기는 AD 1499年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大君 60間 君, 公主 50間, 翁主宗親2品 以上 40間 3品 以下庶人 10間, 母得用熟石花栱草栱』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서 이조초(李朝初)부터 국가(國家)에서 일반주택(一般住宅)의 규모와 장식적인 것을 제한하기 시작하였으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세력가의 법(法)위반으로 그 규모를 최고 99간(間)까지 허락하게 되어 비원내의 99간가(間家)이 연경당(演慶堂)과 같은 실례(實例)의 주택(住宅)이 다수(多數) 건축(建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한을 받아 오며 건축된 서울지방의 이조시대(李朝時代) 고택(故宅)들은 그 지역을 따라 대략 같은 계급끼리 마을을 이루어 왔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니, 지금의 가회동 재동지역을 중심(中心)한 북촌(北村)과 남산 밑의 남촌(南村)은 양반계급(兩班階級)의 거주지(居住地)였다. 특히 북촌(北村)은 세력있는 대가(大家)들이 많이 운집(雲集)하였고 남촌(南村)에는 가난한 양반들의 거주지였다고 전하여 온다.

또 서울의 중심지(中心地)인 운중가가 자리 잡고 있는 서린동, 다동, 무료동 등지에는 중인(中人)계급이 많이 거주하였다고 한다.

그 외의 지역에는 주로 상민(常民)들이 거처를 정하되 같은 직업인들끼리 모여 살았다고 한다.

오늘날 채집되는 이조시대(李朝時代)의 고택(故宅)들은 주로 중기이후(中期以後) 말기

(末期)의 것이 대부분(大部分)이고 전기(前期)에 속한 것은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다. 이제 그 실례(實例)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서울의 주택실례(住宅實例)

1) 서민계급의 고주택(古住宅)

서울 지역(地域)에서 채집된 서민계급의 고가(古家)들 중 몇 개의 실례(實例)를 들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사동 김씨가(金氏家)

이 주택은 지금부터 약 90여년전 건축된 것으로 추측되는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주택 실례(住宅實例)가 아닌가 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면이 도로에 면한 관계도 있겠지만 서민주택의 일반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길가로 난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마당이 되고, 집 전체는 한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문 옆이 바로 두개의 온돌방으로 이는 사랑방이 되고 그 옆에 조그만한 광과 측간(廁間)이 자리잡고 있다. 이 측간(廁間)은 중류(中流)나 상류주택(上流住宅)에서 남녀(男女)구별을 두고 설치된 것과는 달리 남녀공동(男女共同)으로 사용(使用)하게 되어 있다.

대문의 우측(右側)으로는 소위 안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엌, 안방, 대청, 건너방이 ㄱ자형(字型)으로 배치된다.

부엌의 구성은 안방에서 부엌 쪽으로 붙은 벽장 밑에 솔거는 부뚜막이 놓이고 한쪽에 장작을 놓아들 좁은 부엌바닥과 조그만 찬장을 놓을 공간밖에는 없다.

안방 역시 빈약한 것으로 특히 이 주택의 안방에는 기둥이 방 가운데로 노출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측면으로 후(後)에 확장한 것이 아니면, 건축재(建築材)의 열등으로 5량구조(五樑構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대청 역시 한간 정도의 크기로 후면(後面)은 길이기 때문에 높은 창을 낸 벽으로 처리하였고 마당 쪽은 아무런 창호(窓戶)도 없다.

건너방 역시 한간으로 앞에 한자정도 넓이의 널판으로 된 퇴가 붙어 있다.

이 집의 구조(構造)는 높이 약 3촌(寸) 정도의 토단상(土壇上)에 호박주초로 사용하여 4촌(寸) 정도의 각목(角木) 기둥으로 처리하였다.

간살은 3량(三梁)이며 서까래는 2-3촌(寸) 정도 환목(丸木)으로 흘처마로 처리하였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기와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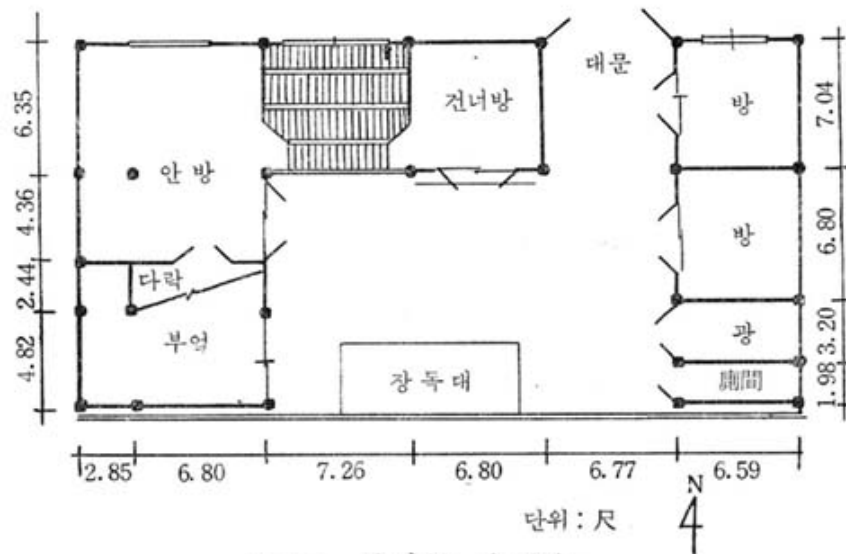


그림 1 인사동 金氏家

그림1. 인사동 김씨가(金氏家) 단위: 척(尺)

나. 만리동 이씨가(萬里洞 李氏家)

이 집은 지금부터 약 100년전 건축(建築)된 것으로 평면형태(平面形態)는 ㄷ자형(字型)으로 대문을 들어서면 곧 안마당이 되고, 안채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엌 안방, 대청, 건너방으로, 대문 옆의 사랑채에 해당되는 곳은 두개의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평면(平面)역시 안채 사랑채가 상류(上流)나 중류주택(中流住宅)에서와 같이 독립된 동(棟)으로 되지 않고 한 동(棟)으로 연속되어 있다.(그림2)

이 주택(住宅)의 구조(構造)는 2촌(寸) 정도의 낮은 토단상(土壇上)에 호박주춧돌을 놓고 직경 4촌(寸) 정도 되는 둥근 환목(丸木)을 기둥으로 세웠다. 처마는 흘쳐마이고 우진각 초가지붕이다. 간살은 4량(四樑)으로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3량(三樑)에 퇴간형식으로 달아낸 4량(四樑)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주택(住宅)의 안방에는 소위 샷갓반자로 된 것이다. 샷갓반자는 집높이가 낮은 관계로 만약 들보밑을 천정으로 하면 천정이 너무 낮아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천정을 서까래면을 따라서 마치 샷갓모양으로 처리하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자연히 안방에 가로지른 들보와 대공은 노출되어 또 다른 하나의 불편을 주게 되는 것이다.

다. 만리동 박씨가(朴氏家)

이 주택은 ②에서와 같은 지역내(地域內)에 위치하면서도 좀 규모가 큰 주택(住宅)이다.

대문을 들어서면 우측으로 사랑방이 있고 이 사랑방 모퉁이를 돌아서 조그만 문들을 지나면 안마당에 이르게 된다. 안마당 쪽으로는 낮고 길이가 짧은 공장(空牆)이 있고 그 저쪽에 장독대가 놓인다. 안채는 사랑방과 연속된 동(棟)으로서 부엌, 안방, 대청, 건너방의 순으로 ㄱ자형(字型)으로 배치되어 있다. 부엌은 한간은 토간(土間)이고 한간은 마루로서 찬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안채의 다른 한쪽은 세개의 광과 한간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들 방들은 본래 이 집의 원주인이 기름을 짜서 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짜던 작업장과 이의 저장소로 사용하던 것이라고 한다. 즉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지 않은 예(例)이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서민계급은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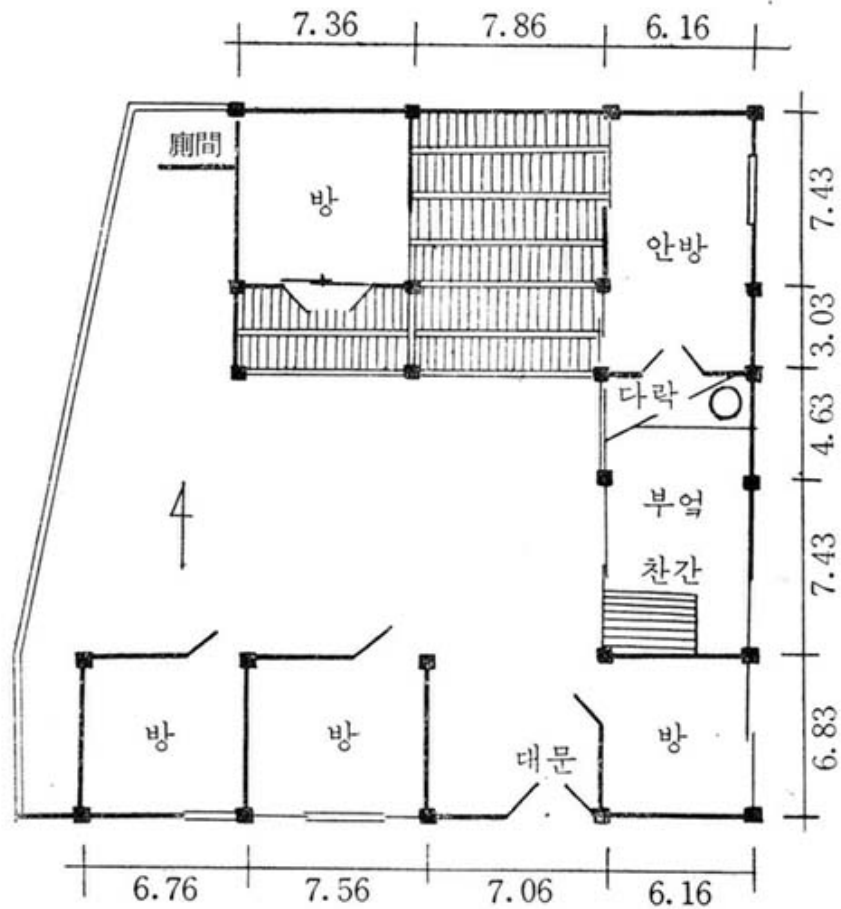


그림 2 만리동 李氏家
단위 : 尺

그림2. 만리동 이씨가(李氏家) 단위 : 척(尺)

건너방과 상기(上記) 광들 사이에 난 중문(中門)을 통해서 뒷마당에 이르면 한쪽에 측간(廁間)이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이 주택(住宅)에서도 측간(廁間)은 하나로 남녀공동(男女共同)으로 사용(使用)하고 있다. 사랑방에서 이 측간(廁間)까지는 왕래에 불편을 주고 있지만 소변(小便)은 모두 요강을 사용하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

이 주택(住宅)의 구조(構造)는 역시 3촌(寸) 정도의 토단상(土壇上)에 육모뿔의 비교적 적은 주초석에 4촌각(寸角)정도 되는 기둥으로 부연없이 팔작기와지붕으로 처리하였다. 간살은 전술(前述)한 바와 같은 퇴간형식의 4량(四樑)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대청 대들보 위쪽으로 상이나 기타 세간들을 엮을 수 있는 선반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풍속(風俗)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一般的)인 것이지만 부연하여 둔다.(그림3)

2) 중류(中流)계급의 고주택(古住宅)

중류(中流)계급이라 함은 이조신분사회제도(李朝身分社會制度)중(中) 중인(中人)계급을 중심으로 서리(胥吏) 군교(軍校)계급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중류(中流)계급을 뜻한다.

지금까지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이에 해당되는 주택으로는 불과 2-3동(棟)밖에 없다. 그중 하나는 다음 실례(實例)②에 밝힌 명륜동에 위치(位置)한 군교(軍校)의 집이고 다른 둘은 같은 서울 중심가(中心街)가 인 서린동(瑞麟洞)과 무교동(武橋洞)에서 각각 채집되었다. 이와 같은 적은 수(數)의 주택(住宅)으로는 그 공통적(共通的)인 특색(特色)을 논하기 상당히 곤란하나 다행히 중인(中人)계급으로 채집된 두 주택은 평면적(平面的) 특색(特色)이나 구조적(構造的) 특색(特色)이 너무나 같은 것으로 보아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중인(中人)계급의 주택(住宅)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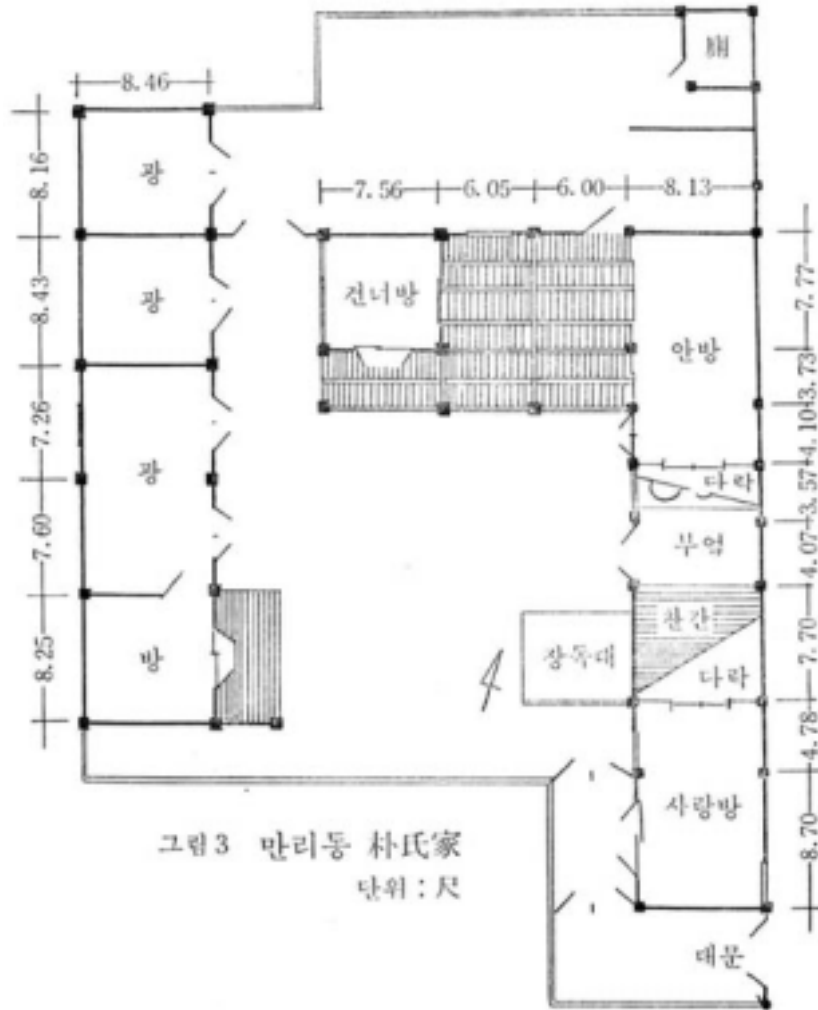


그림3. 만리동 박씨가(朴氏家) 단위 : 척(尺)

가. 명륜동 김씨가

이 주택(住宅)은 성균관으로 올라가는 큰 대로(大路)에서 창경원 담쪽으로 난 골목을 올라가면 산언덕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집은 본래(本來) 궁(宮)에 출입(出入)하던 군교(軍校)의 주택(住宅)이었다고 전하여 온다.

그러나 불행히도 안채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기타의 부속사는 모두 개축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림으로 본래의 형태는 알 수 없다.

안채의 평면(平面)은 2간(間)의 부엌과 2간(間)의 안방, 1간(間)의 대청, 1간(間)의 건너

방으로 ㄱ자형(字形)으로 되어 있다. 평면(平面)의 형태는 서울지방의 주택(住宅)과 다른바 없다.

구조상(構造上)으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높이 약 3촌(寸)정도의 토단(土壇)가장자리를 방주형(方柱形)의 화강석으로 마무리한 것이 서민계급주택과 다른 점이다. 또 이 기단위에 놓은 주초석(柱礎石) 역시 네모뿔의 화강석 주초이다. 기둥은 약 5촌각(寸角) 정도의 각주(角柱)로 하고 처마는 흘처마에 맞배기와 지붕이다.

간살은 4량(四樑)으로서 그림 4에서 보는바와 같이 굵은 대들보 위에 마루대공과 동자주를 세워서 도리를 받치고 있는 것이 다른 주택(住宅)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실례(實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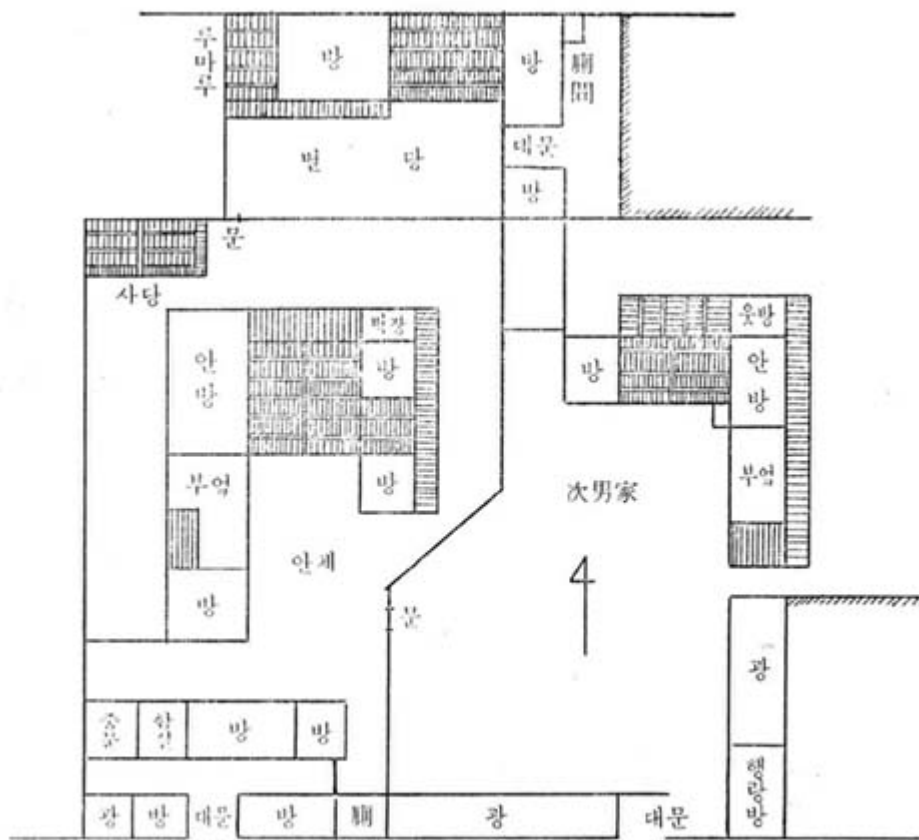


그림 5 서린동 白氏家

그림 4. 4량(四樑)지붕틀

나. 서린동(瑞麟洞) 백씨가(白氏家)

이 주택(住宅)은 현주인(現主人)(남북)의 8대조(八代祖)때 창건한 것으로 약 300여년 전의 건축(建築)이라고 하지만 확실치 않다.

주택(住宅)의 전체 배치는 한 Block 속에 원주인의 집과 그 옆에 차남가(次男家) 부속사당 및 집안의 행랑인들 거처할 부속사가 주위에 자리 잡고 있다.(그림 5)

길가로 난 행랑채의 가운데 설치한 대문(大門)을 들어서 중문(中門)을 돌아 들어서면 안채가 된다.

안채는 찬간, 부엌, 안방, 대청, 건너방의 순서로 ㄷ자형(字形)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하여야 할 것은 평면도(平面圖)에서 보는바와 같이 건너방으로 전후(前後)의 두개의 방사이에 마루방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면(平面)구성은 무교동(武橋洞)의 신씨가(辛氏家)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지역(地域)의 특징인지 아니면 중인계급(中人階級)의 특징인지 알 수 없다.

안채 뒤로 돌아가면 2간의 사당이 있고 사당 옆으로 난 적은 일각대문(一角大門)을 들어서면 별당(別堂)이 된다. 별당(別堂)은 루마루, 방, 대청, 방으로 ㄱ자형(字形)을 이루고 있다. 원래 이 집을 지을 당시 건축주가 과부였기 때문에 바깥 사랑채는 생략하고 안채 뒤에다 별당(別堂)(혹은 안사랑)을 건축하였다고 전한다.

이 본채와 낮은 담 하나를 두고 옆으로 차남가(次男家)를 건축하였는바 차남가 역시 방, 대청, 안방부엌, 찬간, 옷방으로 구성되어 일반 서울 주택(住宅)과 별(別)다른 특징없이 건축(建築)되었다.

차남가(次男家) 옆은 역시 이 주택의 사랑채를 짓고 그 뒤에는 또 다른 부속사를 지었다.

또 차남가 사랑채 앞에도 한채의 주택(住宅)이 있고 차남가 사랑채 뒤에 자리잡은 다른 부속채 옆에도 또 하나의 부속사가 있는바, 이들은 모두 이집에 관계된 행랑인들의 살림집이었다고 한다.

구조적(構造的)으로 고찰하면 전체(全體) 높이 약 3척(尺)정도 되는 높은 화강석 기반상(基壇上)에 네모뿔화강석 기초를 놓고 굽기 약 7촌각(寸角)되는 굽은 기둥을 세웠다.

처마는, 원래의 안채는 흘처마이나 차남가(次男家)는 겹처마이다. 또 소로받침 역시 차남가(次男家)에만 있다.

지붕은 팔작기와지붕이다.

안채 뒤로 난 별당(別堂)의 앞편에는 햇빛과 비를 막을 수 있는 차양을 맞배지붕 모양으로 가설하였다.

안채와 차남가 사이의 담은 붉은 벽돌로 쌓아 치장하였고 별당(別堂)과 안채 사이의 담은 검은 벽돌로 쌓았다. 또 이 집에 설치한 대문은 서민주택에서와 마찬가지로 행랑채와 같은 높이로 된 평대문(平大門)으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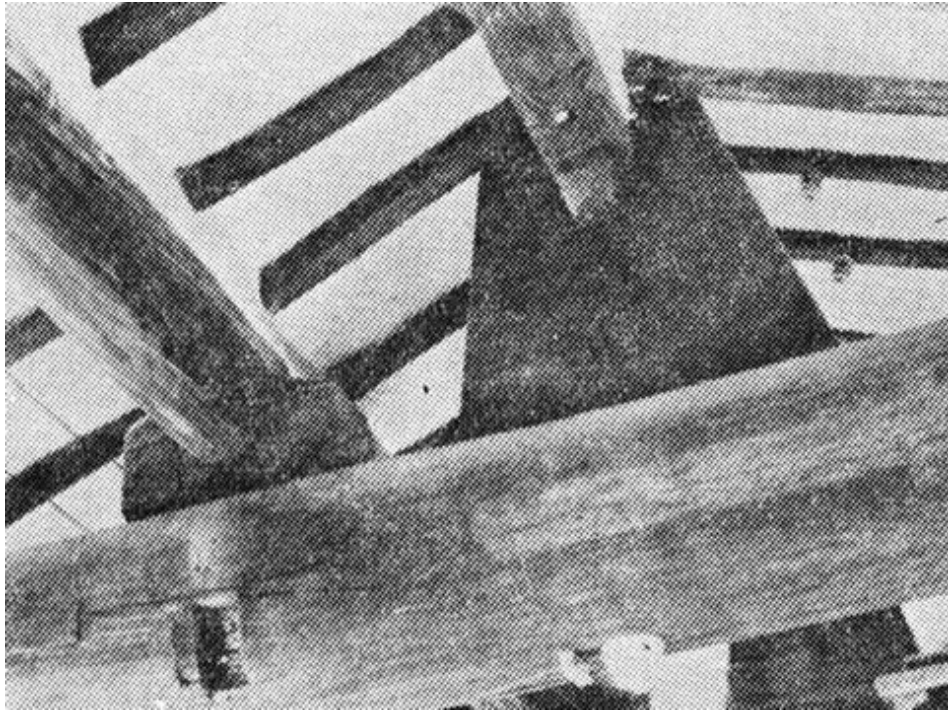


그림5. 서린동 백씨가(白氏家)

다. 무교동(武橋洞) 신씨가(辛氏家)

이 주택(住宅)은 지금부터 약 150여년전 건축(建築)된 것으로 추측된다.(그림6)

이 주택(住宅)의 평면배치(平面配置)는 평면도(平面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줄행랑 가운데로 난 대문을 들어서면 행랑마당이 되고 이 행랑마당에서 낮으막한 공장(空牆)에 설치된 일각 대문(一角大門)을 들어서면 사랑채가 된다.

사랑채는 침방, 사랑방, 대청, 방의 순으로 ㄱ자형태(字形態)로 구성되었다. 이 사랑채의 옆으로 난 중문을 돌아서거나 전술한 행랑마당에서 바른쪽으로 난 중문을 돌아 들어가면 안채에 이른다.

안채는 부엌, 안방, 옷방, 대청, 건너방 마루의 순서로 h자형(字形)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히 언급하여야 할 것은 옷방의 형태로 중류(中流)나 상류주택(上流住宅)에서는 안방에 옷방을 만들 때는 두가지 방법(方法)이 있다.

그 하나는 이 주택(住宅)에서와 마찬가지로 안방 옷쪽으로 하나의 방을 돌출시켜 만드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기다란 안방을 단순히 그 속에서 옷쪽편에 장지문을 달아 안방과 옷방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 옷방은 두가지 모두 의거릿장, 삼층장 등을 비치해 두는 곳으로 사용된다.

또한 이 주택(住宅)에서 특히 언급해야 하는 것은 건너방으로, 이것은 전술한 백씨가(白氏家)에서와 같이 전후(前後)에 방을 두고 가운데 마루를 둔 방법(方法)이다.

이러한 방법은 중인가(中人家)의 특색(特色)인지 아니면 이 지역에만 분포된 특색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 이유는 이러한 평면(平面)으로 구성(構成)하고 있는 주택(住宅)으로 발견된 것은 이상 두개의 실례(實例)밖에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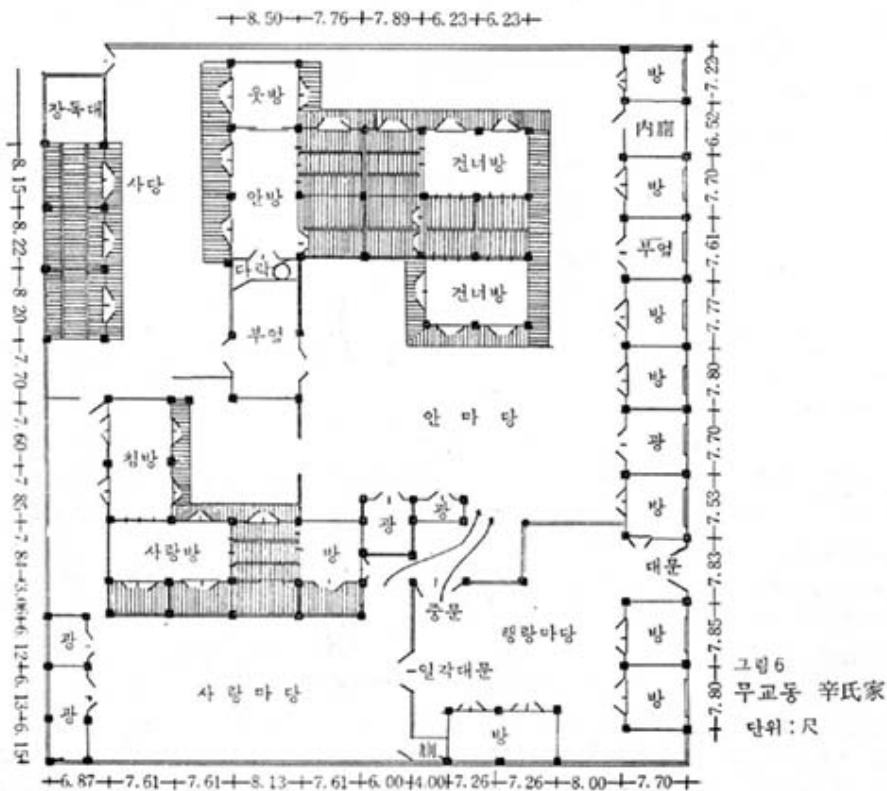


그림6. 무교동 신씨가(辛氏家) 단위 : 척(尺)

안채 옆에는 행랑인들이 거처하는 방들과 부엌, 그리고 광으로 구성되어 있는 줄행랑과 또 다른 한쪽에는 사당과 마루방으로 구성된 일자형(一字形) 부속(部屬)이 있다.

이 사당의 옆에는 장독대가 위치한다. 그리고 끝으로 이 주택(住宅)에 사용(使用)하는 측간(廁諫)은 전술(前述)한 사랑마당의 한쪽에 외측(外廁)을 두어 남자(男子)들만이 사용(使用)하고 안채 옆 줄행랑가운데 내측(內廁)을 두어 여인(女人)들만이 사용(使用)한다.

구조적(構造的)으로 살펴보면 이 주택(住宅)의 대문은 현재 솟을대문으로 되어 있는바, 이것은 현주인의 말을 들으면 원래 평대문(平大門)이었던 것을 1920년대(年代)에 다른 곳에서 솟을대문을 옮겨다가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는 본래 이조시대(李朝時代)에는 상류주택(上流住宅) 특히 종이품(從二品) 이상의 집에서 초헌이 드나들 수 있도록 문지방가운데에 홈을 파고 대문의 지붕을 줄행랑 지붕보다 높였든 것이지만 이조말(李朝末)에 와서 가사규제(家舍規制)의 법(法)이나 신분(身分)제도가 문란하여지고 사실상 신분제가 폐지됨으로서 과거 솟을대문을 동경하던 중인(中人)계급에서 평대문(平大門)을 솟을대문으로 고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이 주택(住宅)의 기단(基壇)은 사랑채에서는 3촌(寸) 정도의 화강석 마무리 기단이지만 안채는 3촌(寸) 정도의 기단상에 몇개의 신방들을 놓아서 안채 대청에 올라서게 하였다. 주초석은 모두 화강석네모뿔의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위에 선 기둥 역시 7촌각(寸角) 되는 굵은 기둥이다. 소로받침이나 부연은 모두 없고 지붕은 안채 사랑채는 모두 팔작기와 지붕이고 행랑채만 맞배기와지붕이다. 간살은 5량(五梁)이다.

3) 상류계급(上流階級)의 고주택(古住宅)

상류주택(上流住宅)이라 함은 이조신분 사회신분제도(李朝身分 社會制度)상(上)에 있어

서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양반(兩班)계급에 속한 주택(住宅)을 말한다. 오늘날 서울에 남아 있는 상류주택(上流住宅)으로는 관훈동의 이씨가(李氏家) 수하동의 김씨가(金氏家) 와룡동 김씨가(金氏家), 운니동의 박씨가(朴氏家), 교동의 민씨가 수표동의 장씨가(家)등과 비원의 연경당 등이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필자가 실측조사한 후 대부분의 주택은 개수되어 본래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제 실례(實例)를 들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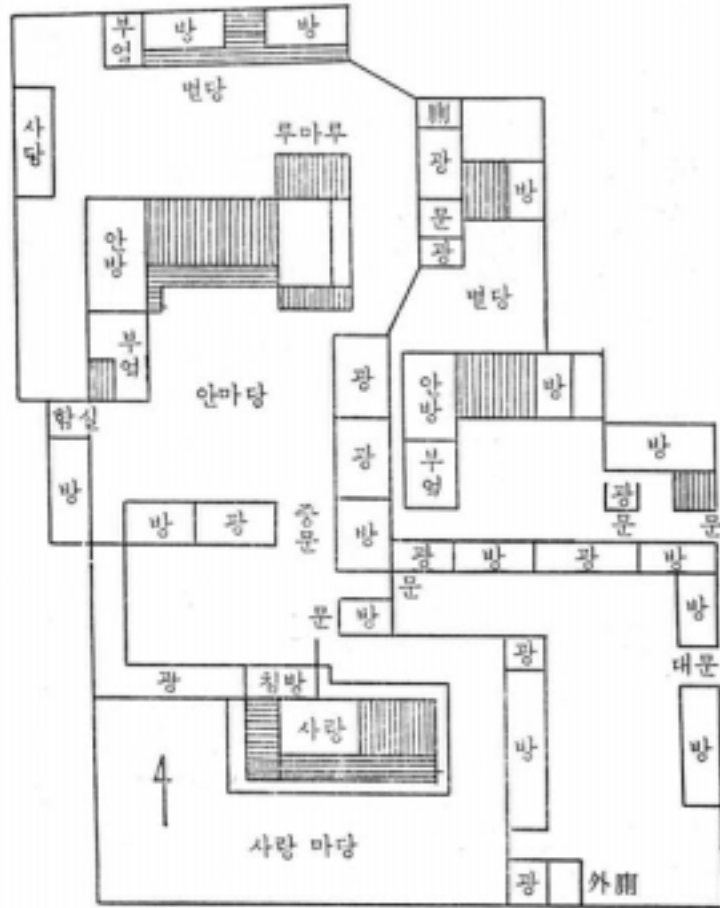


그림 7 수하동 金氏家

그림 7. 수하동 김씨가(金氏家)

가. 수하동 김씨가

이 주택은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한말대신가(韓末大臣家)였다고 한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줄행랑의 가운데로 난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행랑마당이 되고 이 행랑마당에서 좌측(左側) 끝단에 자리 잡은 문(門)을 통하면 사랑채가 된다.

사랑채는 사랑방 사랑마루 루마루, 침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랑채 뒷쪽으로 난 중문을 통하거나 전술(前述)한 행랑마당의 우측단(右側端)에 난 중문(中門)을 통하면 안마당이 되고 정면(正面)에 안채가 자리 잡고 있다.

안채는 부엌, 안방, 대청, 건너방, 루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안채에서 한가지 특기(特記)하여야 할 것은 건너방에 붙은 루마루로서 보통 안채에 루마루가 붙을 때는 건너방 앞에 남향(南向)으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一般的)인데 반(反)해 이 주택(住宅)에서는 건너

방 뒷쪽으로 북향(北向)하여 설치한 점이다.

안채 뒷마당에는 한쪽에 삼간(三間)의 사당이 있고 다른 한쪽에 방, 마루방으로 구성(構成)된 별당(別堂)이 있다. 또 이 별당(別堂) 이외에도 평면도(平面圖)에서 보는바와 같이 안채의 좌측으로 나 중문(中門)을 통하면 다른 별당(別堂)이 또 하나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 별당(別堂) 앞에는 부엌, 안방, 대청, 건너방으로 된 다른 별(別)채가 있는바 이는 후대(後代)에 건축한 것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말한 각 동(棟) 사이는 공장(空牆)과 광과 방으로 구성된 행랑채로 연결되어 있다. 이 주택(住宅)의 측간(廁間)은 중류주택(中流住宅)에서와 마찬가지로 행랑마당 한쪽에 외측(外廁)이 자리 잡고 안채 후면(後面) 끝단에 내측(內廁)이 자리 잡고 있다.

구조면(構造面)으로 살펴보면 사랑채는 높이 3척(尺)정도의 기단상에 자리 잡고 안채는 높이 3촌(寸) 정도의 기단상에 자리잡고 있다. 일반(一般)으로 중류(中流)나 상류주택(上流住宅)에서 사랑채와 안채를 지을 때 안채가 사랑채보다 높은 것이 원칙이지만 이 주택(住宅)에서는 사랑채와 안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관계인지 사랑채의 기단이 안채보다 더 높다. 주초들은 중류주택(中流住宅)에서와 마찬가지로 화강석으로 된 네모뿔형 주초석이며 이 위에 굽기 7촌각(寸角) 되는 굽은 기둥을 세웠다. 도리는 납도리이고 소로받침은 사랑채에만 있고 안채나 별당(別堂)에는 없다. 부연은 모두 없다. 간살은 안채나 사랑채 모두 5량(五梁)이다. 지붕은 안채, 사랑채는 모두 팔작기와지붕이고 나머지는 모두 맞배기와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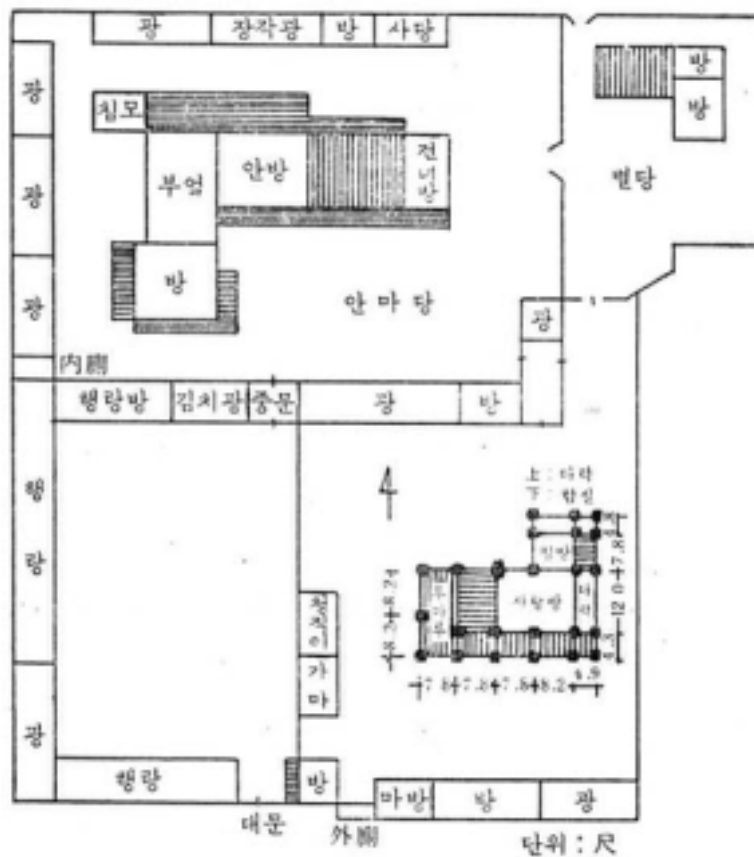


그림 8 전지동 尹氏家

그림8 전지동 윤씨가(尹氏家) 단위 : 척(尺)

나. 견지동 윤씨가(尹氏家)

이 주택은 구한말(舊韓末) 군부대신(軍部大臣)이었던 윤웅렬가(尹雄烈家)라 한다. 지금부터 약 100여년전 건축(建築)으로 필자가 조사실측한 때는 불행히도 사랑채만 남아 있었으나 그후 이마저 모두 헐려지고 현재 빌딩이 들어섰다. 다음에 실린 평면도(平面圖)는 그 자손인 윤영선선생(尹永善先生)의 고증으로 복원한 것이다.(그림8).

먼저 행랑채에 위치한 솥을대문을 들어서면 행랑마당이 되고 이 마당에서 우측(右側)으로 난 중문(中門)을 통(通)하면 사랑채가 자리 잡은 사랑마당이 된다

사랑채는 루마루, 사랑대청 사랑방, 침방의 순으로 ㄱ자형(字形) 평면(平面)을 이루고 있다.

안채는 전술한 행랑마당에서 중문간 행랑채에 붙은 중문(中門)을 통(通)하거나 사랑채 뒤로 난 다른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된다. 안채는 찬방, 부엌, 안방, 대청, 건너방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부엌, 안방, 대청이 일렬로 되어 안방의 채광이 양호하게 된 점이다. 이런 배치는 관훈동 이씨가(李氏家)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전국적(全國的)으로 상류주택(上流住宅)에서 가끔 찾아볼 수 있는 배치법이다.

안채 옆으로 난 중문을 통하면 별당마당에 이른다. 별당은 사랑채를 축소한 것으로 마루, 사랑방, 침실로 구성된다. 이 주택(住宅)의 사당은 제일 뒤쪽으로 광과 방과 더불어 일렬로 된 부엌(部屋)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주택(住宅)에서도 사랑마당 한쪽에 외측(外廁), 안마당 한쪽에 내측(內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다른 상류(上流) 주택과 공통(共通)된 수법(手法)이다.

구조면(構造面)에서 살펴보면 안채나 행랑채는 모두 없어진 관계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고 단지 안채는 팔작기와지붕이고 행랑채는 맞배기와지붕이었다고 한다. 사랑채는 3척(尺) 정도의 화강석 기단상에 7촌(寸), 정도의 기둥을 세우고 납도리에 부연은 없다. 지붕은 팔작기와지붕이다. 사랑채의 루마루 밑은 지반면(地盤面)부터 높은 화강석주초석을 세우고 이 위에 기둥을 세웠다. 이러한 방법(方法)은 상류주택에서 루마루를 설치할 때는 항상 사용하는 수법(手法)이다.

다. 윤니동 박씨가(朴氏家)

이 주택은 본래 환관의 주택이었다고 하는바 이의 평면(平面)은 다른 상류주택(上流住宅)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그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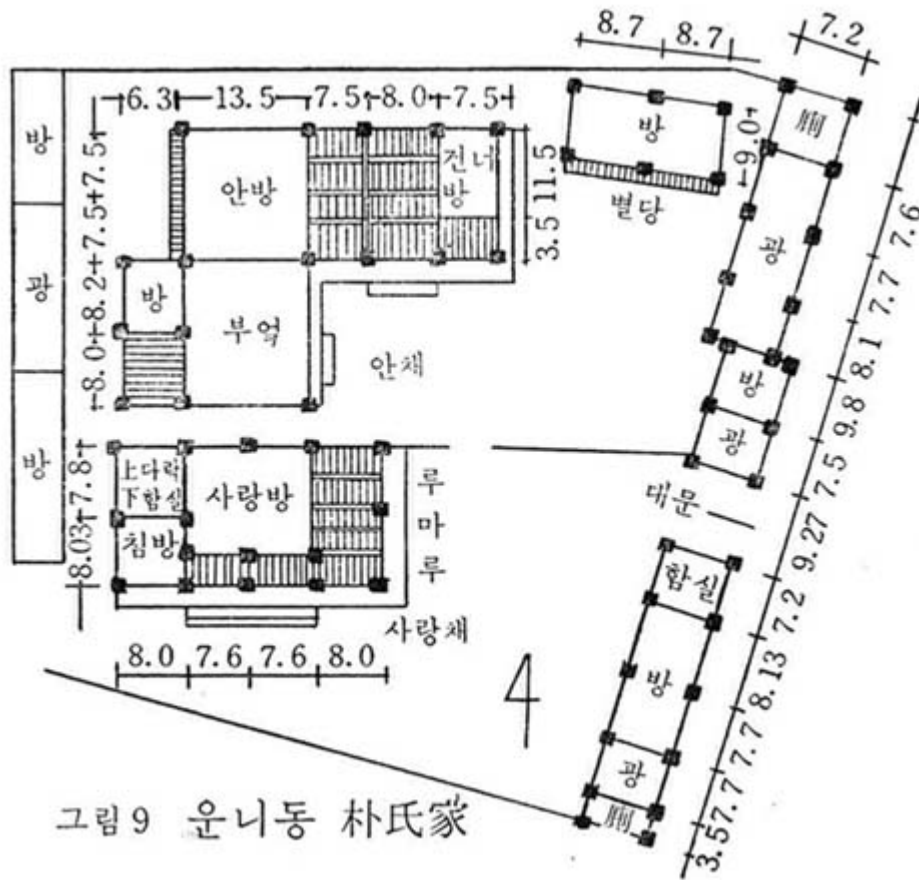


그림 9 윤니동 박氏家

그림9. 윤니동 박씨가(朴氏家)

평면배치(平面配置)를 살펴보면 줄행랑 중간(中間)에 난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사랑마당이 되고 여기에 사랑채가 자리 잡고 있다. 사랑채는 침방, 사랑방, 루마루가 일렬로 되어 있고 이 사랑채의 방이나 루마루에서 안채가 들여다 보이게 되어 있고 또 안채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게 되어 있다. 즉 안채로 드나들 사람들은 반듯이 사랑마당을 거쳐 안채로 들어가게 되어 있음으로 감시하기에 좋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이 주택이 환관의 주택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내시 집은 모두 이와 같은 평면배치(平面配置)를 한 것으로 하나의 특색을 이룬다.

안채의 구성은 부엌, 안방, 대청 건너방, 루마루의 순으로 ㄱ자형(字形)으로 된 것이 일반 상류주택(上流住宅)과 별(別)다른바 없다. 안채 옆으로는 역시 별당(別堂)이 자리 잡고 광과 방으로 구성된 줄행랑이 또한 부속되어 있다.

구조적(構造的)으로 고찰하면 다른 상류주택(上流住宅)과 별(別)다른 바 없이 안채와 사랑채는 팔작기와지붕에 부연은 없으며 간살은 5량(五樑)이다.

라. 비원(秘苑)의 연경당(演慶堂)

이 주택(住宅)은 AD 1828년 순조(純祖)28년에 세자(世子)의 청을 받아들여 그 당시 상류주택(上流住宅)을 모방하여 지은 것이라 한다. 그림으로 전체의 간수는 99간(間)이나 된다. 99간(間)이라고 하는 간수(間數)의 출처는 본래 세종조(世宗祖)에 가사규제(家舍規制)의 항을 제정할 때 대군(大君), 군(君) 공주(公主)60간(間), 응주종친(翁主宗親) 2품이상(品

以上) 40간(間)…으로 규제하였으나 차차 법(法)이 문란하여지고 더욱이 세력있는 상류(上流)계급이 이 법(法)을 위반하여 그들의 주택규모(住宅規模)를 확대하자 나라에서는 99간(間)까지로 목인한데서 온 간수(間數)인 것이다. 그럼으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일반민가(一般民家)의 최대규모는 사실상 99간(間)으로 확대되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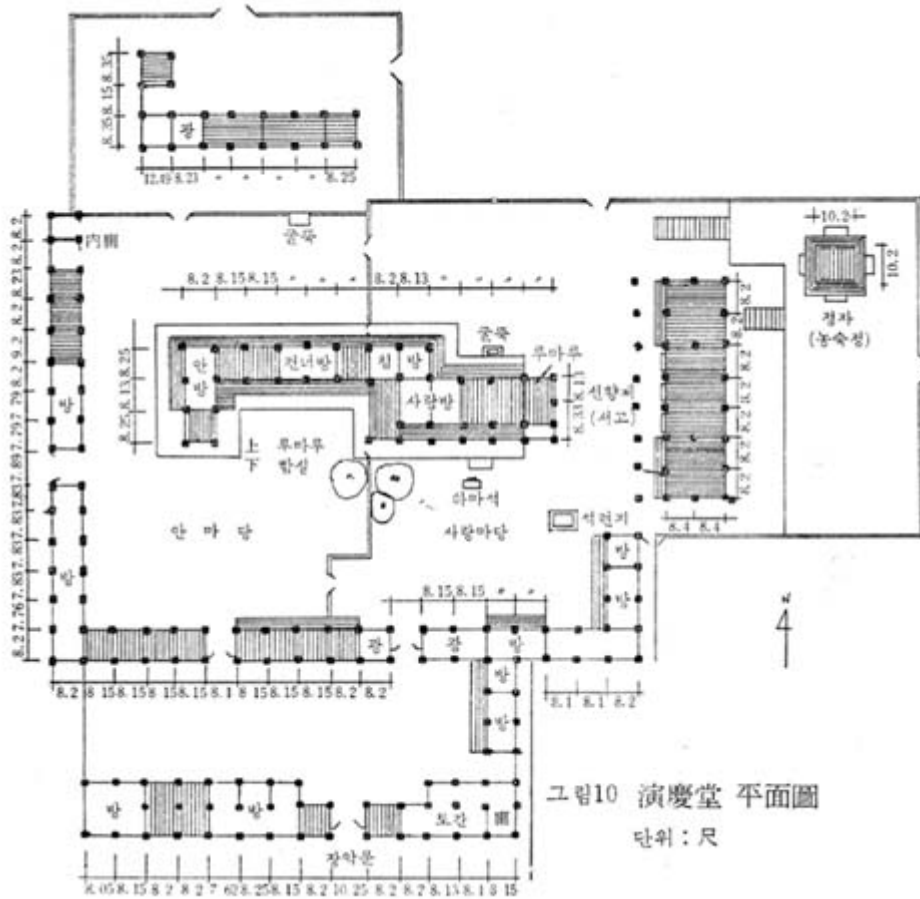


그림10. 연경당(演慶堂) 평면도(平面圖)

평면배치(平面配置)를 고찰하면 우선 큰 느티나무가 서 있는 넓은 마당을 통하여 줄행랑 가운데로 난 솟을대문을 들어서게 된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행랑마당이 되고 이 행랑마당에는 제일 신분이 낮은 행랑인들이 기거할 방과 마루와 남자들만이 사용할 외측(外廁), 그리고 말과 가마를 보관할 마구간이 있다.

이 행랑마당에서 중문간 행랑채의 우측(右側)으로 난 중문(中門)을 통해 들어가면 사랑마당이 되고 멀리 높은 기단상에 사랑채가 보인다.

사랑채는 누마루 사랑방, 침방, 사랑대청, 루마루로 구성되어 안채와 연속된 동(棟)으로 처리되어 있다.

사랑채의 우측(右側)으로는 청(廳)으로 구성된 선향제(善香齋)가 자리 잡고 있으니 이것은 주택의 서고(書庫)인 것이다.

이 선향제 뒤로 난 계단, 혹은 옆으로 난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낮은 동산이 있고 여기에 농수정(農繡亭)이라 부르는 정자(亭子)가 있다. 이 정자(亭子)는 상류주택(上流住宅) 특히 규모를 갖춘 대가(大家)에서 보통 설치하는 것으로 이 정자(亭子)에 앉으면 집 전체

가 내려다 보이게 된다.

전술(前述)한 바깥행랑마당에서 좌측(左側)으로난 또 다른 하나의 중문(中門)을 통(通)하여 들어서면 안마당이 되고 이 안마당에 안채가 널찍히 자리 잡고 있다.

안채는 안방, 대청, 건너방과, 상부(上部)는 루다락으로 되고 하부(下部)는 안방에 붙때게 된 함실로 된 실(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한가지 특기(特記)하여야 할 것은 안방에 붙은 이 루다락과 함실의 구조로 이는 대가(大家)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구조이다.

즉 일반(一般) 상류주택(上流住宅)이나 중류주택(中流住宅), 서민주택(庶民住宅)에 있어서도 안방 옆은 모두 부엌이 붙어 있게 되는 것이 통례(通例)이다. 그러나 상류주택(上流住宅)중에서도 아주 큰 소위 대가(大家)에서는 부엌은 반빗간이란 이름으로 별동(別棟)으로 처리된다. 이 반빗간에는 차집이나 반빗아치들이 가사(家事)에 종사하여 모든 음식을 만들어 주인(主人)과 주인가족(主人家族)에게 공급한다. 그러므로 자연 안방 옆은 상부(上部)가 루마루로 되고 하부(下部)는 안방에 붙때게 된 함실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연경당의 반빗간은 어디 있는가? 혹자는 이 안채뒷쪽으로 난 별채를 별당(別堂)으로 보아 반빗간은 왕궁(王宮)속에 지은만큼 생략한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실도 있으나 본인의 견해로는 바로 안채 뒤의 별채가 반빗간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로는 보통 상류주택(上流住宅)에 부속된 별당(別堂)은 사랑채를 축소한 형태로 방과 마루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一般的)이나 여기에 있어서 전술(前述)한 별채는 모두 마루로 구성되어 있고 또 광이 부속되어 있으며 또 본인의 조사(調査)로는 부주막이 설치(設置)되었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반빗간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안채의 옆에 붙은 부옥(部屋)들은 방과 마루로 구성(構成)되고 그 끝단에 안악네들만이 사용(使用)하는 내축(內廁)이 붙어 있다.

구조적(構造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채와 사랑채는 모두 화강석의 높은 기단상(基壇上)에 네모뿔로 잘 다듬은 주초석(柱礎石)을 사용하고 이 위에 굵기 7촌각(寸角) 이상되는 굵은 방주(方柱)를 사용하였다. 도리는 납도리이고 소로받침이 있고 처마는 흘처마이다. 대청의 간살은 5량구조(五樑構造)로 되고 대청과 안방 사이에는 6쪽의 8각 불발기로 된 분합을 설치하여 필요시에는 들쇠에 달아매게 되었다.

선향제(善香濟)의 양측 박공면은 벽들로 쌓은 벽으로 처리되고 전면(前面)에는 뜨거운 태양빛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맞배형 지붕이 가설되었다. 이러한 처리는 서울지방의 민씨가(閔氏家)나 백씨가(白氏家) 모두에 있는 것으로 상류주택(上流住宅)에서는 전국적(全國的)으로 처리되는 수법(手法)이다.

굴뚝은 모두 검은 벽돌로 높게 쌓았고, 특히 재미있는 것은 안채 뒤로 난 낮은 공장(空牆)에 굴뚝을 붙이고 그 상부(上部)에는 연가(煙家)를 얹어 놓은 것이다. 마당과 마당 사이에 설치된 모든 공장(空牆)은 그 상부(上部)를 암기와 숫기와로 지붕골을 만들고 용마루를 만들어 치장하고 있다.

3. 서울 지역(地域)의 고주택(古住宅) 특색(特色)

1) 평면적(平面的) 특색(特色)

서울 지방(地方) 주택(住宅)의 평면적(平面的) 특색(特色) 이들이 타지방(他地方) 예컨대 함경도지방(咸鏡道地方)의 “전자형주택(田字形住宅)”이나 평안도지방(平安道地方)의 “일자

형주택(一字形住宅) 등과는 달리 “ㄱ자형(字形)”이 기본형을 이루고 있는 점이다. 서민(庶民), 중류(中流), 상류(上流)를 막론하고 그 몸체는 부엌, 안방, 대청, 건너방이 “ㄱ자형(字形)”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중류계급(中流階級)에서는 이 ㄱ자형(字形)에 옷방이 첨가되고 다시 상류주택(上流住宅)에서는 루마루가 옷방과 더불어 첨가된다. 그러나 이의 기본은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ㄱ자형(字形)인 것이다.

둘째로 중상류(中上流)에서 별동으로 건축(建築)되는 사랑채 역시 침방, 사랑방, 대청, 루마루로 구성(構成)된 ㄱ자형(字形)이 그 기본 패턴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별당건축(別堂建築)으로 확대될 때에도 동일(同一)한 형태(形態)를 이룬다.

세째, 중(中), 상류주택(上流住宅)에는 종가(宗家)인 경우는 사당(祠堂)이 건축(建築)된다.

네째, 서민주택(庶民住宅)은 측간(廁間)이 1개소(個所)에만 건축(建築)되나 중상류(中上流)는 공(共)히 외측(外廁)과 내측(內廁)으로 구분(區分)된다.

다섯째, 중(中) 상류(上流)에서는 행랑(行廊)채가 조성(造成)되어 신분(身分)에 의한 공간분화(空間分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이외에 서민(庶民), 중류(中流), 상류(上流)를 막론하고 남녀구별(男女區別)에 의하여 공간분화(空間分化)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는 안방과 사랑방, 외측(外廁)과 내측(內廁)이 바로 그것이며, 안채와 사랑채로 분화(分化)될 때는 이의 적극적인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한국주택(韓國住宅)의 공통적(共通的)인 특징(特徵)인 것이다.

다음 서울을 비롯한 한국적(韓國的) 주택(住宅)의 특색(特色)은 전체적(全體的)으로는 외부(外部)에 대하여 폐쇄적이지만 자체내(自體內)에서는 개방적이며, 전체적으로는 동(棟)으로 분화(分化)되고 자체내에서는 간(間)으로 분화(分化)되고 있다. 이는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의 중간적(中間的)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中國)의 주택(住宅)은 동(棟)으로 분화(分化)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며 일본(日本)의 그것은 간(間)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2) 구조적(構造的) 특색(特色)

이조시대(李朝時代) 서울 주택(住宅)의 구조적(構造的) 특색을 도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지방주택의 구조(서울地方住宅의 構造)

住宅種類 構造各部	庶民住宅	中流住宅	上流
기단	토단	화강석기단	화강석기단
주초석	호박주초	화강석네모뿔형	화강석네모뿔형
기둥	丸柱(직경4寸) 角柱(4寸角)	角柱(7寸角)	角柱(7-8寸角)
도리	납도리	납도리	납도리
소로받침	없다	없다	있다
간살	6-7尺-1間	7尺-8尺 1間	7尺-8尺-9尺 1間
架構	三樑 四樑	五樑	五梁 七樑

住宅種類 構造各部	庶民住宅	中流住宅	上流
지붕	초가-우진각	기와-팔작지붕(몸채)	기와-팔작지붕(몸채)
부연	기와-맞배지붕-팔작지붕 없다	기와-맞배지붕(부속채) 없다(몸채) 없다(부속채)	기와-맞배지붕(부속채) 있다(몸채) 없다(부속채)
창호종류	띠살, 용자, 아자, 완자, 널판문,	띠살, 용자, 아자, 완자, 불 발기, 널판문, 골판문	띠살, 용자, 아자, 완자, 불 발기, 구갑, 솥대살정자, 널 판문, 골판문등 다수
대문	평대문	평대문	솥을대문
바닥	광-토간 마루-우물마루 방-온돌	광-토간마루-우물마루 방-온돌	광-토간마루-우물마루 방-온돌
천장	삿갓반자평반자	평반자	평반자
굴뚝	토관 널판굴뚝	검은 벽돌쌓기	검은벽돌쌓기 煙家처리
담	토담	검은 벽돌담(용마루처리)	검은벽돌담(용마루처리)

이상과 같이 도표에 나타난 사항이외에 특기(特記)하여야 할 것은 서울지방의 주택유구(住宅遺構)가 이조중기이후(李朝中期以後) 말기(末期)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大部分)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結果)인지는 몰라도 상류주택(上流住宅)에서 원주(圓柱)를 사용(使用)한 실례(實例)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조시대(李朝時代) 주택(住宅)들중 강릉의 관씨가(觀氏家), 임경당(臨鏡堂), 경주의 최씨가(崔氏家), 해남(海南)의 윤씨가(尹氏家)등에서는 원주(圓柱)의 사용을 볼 수 있다.

다음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익공계(翼工係)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타지방(他地方)에서는 익공계(翼工係)가 발견(發見)되니 강릉(江陵)의 오죽헌(烏竹軒), 안동이 양진당(養眞堂) 등이 그것이다. 서울지방의 이조주택실례(李朝住宅實例)들이 익공(翼工)을 사용 안 한 것은 1항에 말한바와 같이 경국대전의 화공초공(花栱草栱)의 금지법(禁止法)을 준수(遵守)한 것인지, 아니면 불행히도 익공계(翼工係) 주택실례(住宅實例)들이 현존(現存)치 않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필자의 견해(見解)로는 서울의 주택(住宅)들은 수도에 건축한 것이니 만큼 법(法)을 잘 지킨 결과이며 지방에서는 법(法)이 잘 미치지 못하여 지방 세력가들이 익공계주택을 건축하였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앞으로의 연구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參考文獻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약사 1963. 12.3
拙稿 : 李朝時代 서울의 住宅 郷土서울 25號 1964.



<page 63 사진>

註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편 서울 略史1963. 12. 31
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편
서울특별시사 고적편 35p-36p.